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는군요?
가족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기술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 삼양이 있습니다



삼양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각종 자동차 부품이 운전을 더욱 안전하게 해줍니다

華巖書院 山仰會報

蓮福同峯寺曠曹契司契會圖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連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국립광주박물관 도록>에서 전재
1542년 3월~7월경 사마시에 급제한 동기생들이 십 수년을 전후하여 대과에 급제한 후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린 그림. 참석한 사람은 鄭惟吉, 閔箕, 南應雲, 李澤, 李樞, 金仁후, 尹玉 등 7명이었다. 이 그림에는 홍문관(弘文館) 정자(正字)인 김인후가 쓴 칠언율시(七言律詩)가 있다.

河西先生은 湖南儒林의 긍지요 자랑

회장 朴 鐘 達

丁亥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7년 山仰會 정기 총회 및 학술강연에 참석하시기 위해 원근각지에서 왕림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春秋祭享을 봉행할 때나 산양회가 열릴 때나 한 번도 불참하지 않고 참석하시어 후학들을 격려해 주신 東江 柳漢相고문님께 무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山仰會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山仰契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2001년 8월에 새롭게 출발한 모임입니다. 초대회장 안진오 교수께서 모임의 기틀을 다져주셨고, 2004년에 제가 2대회장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河西先生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文廟에 배향되시어 우리 호남을 광복시키신 분입니다. 河西先生은 湖南儒林의 긍지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훌륭하신 河西先生을 우리 호남유림들이 받들어 모시지 않는다면 누가 모시겠습니까? 嶺南에서는 모든 유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退溪先生을 추앙하는 것을 보고 우리 호남에도 퇴계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河西先生이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실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正祖大王은 河西는 東方의 周子요 先行後知 直內方外의 공부는 실로 우리 동방의 제일인자라고 말했습니다. 山仰會는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다 갖춘 大儒賢이신 河西先生의 학덕과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에 옮기는 모임이기에 큰 영광으로 알고 외람되어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 보건데, 산양회는 새 출발한 지 6년밖에 안 되는 단체지만 해마다 춘추제향에 참여하고 20여 차례 이상의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실로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4년 이후 이현창, 윤사순, 송준호, 오종일, 백승중, 이종범, 김충열, 최영성 등 사계의 대표적인 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석학이요 학술원 회원이신 김충열박사를 초청한 강연에 600여명의 전북 유림들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김충열박사의 명강연을 경청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역사를 올곧게 꿰뚫어보는 선비다운 김박사강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회원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 뿌듯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주 학술강연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종섭, 정운엽, 이하영, 양만정, 임동익, 이세환님을 비롯한 전북 유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를 버리고 돌보지 않을 만큼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현들의 높은 학문과 고매한 인격을 이어받고자 하는 우리 유림들이 유학의 다섯 가지 기본 정신인 仁義禮智信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묘명현에 대한 신원을 中宗에게 주청할 정도로 절의를 지켰던 河西선생의 높은 인격과 道學 정신을 오늘날 새로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절의를 지켰던 河西先生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운인지 모릅니다.

김충열박사는 만약 仁宗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정암선생의 지지주의가 河西에 의해서 다시 꽃피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또한 조선조 유학의 도통을 정통으로 계승한 河西선생은 理氣를 포괄한 大心の 哲學者이시기에 당시의 性理學者들과는 다르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아무리 현대화되었다라든가 그 밑바탕에는 700년을 이어온 유교문화의 전통이 아직도 맥맥이 살아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유교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교가 새롭게 인식되자 KBS에서는 <유교, 아시아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국민의 관심을 되돌려 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00만 유림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유림이 결집하고 일치단결하여 유교윤리의 실천운동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河西선생은 유교윤리의 실천을 매우 중시했던 도학자이십니다. 先賢들의 고매한 정신과 인격을 본받고 꾸준한 자기 수양으로 인격을 갈고 닦아, 이로써 가족과 국가와 민족, 전지구상의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修治己人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소임을 맡았으면서도 제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원님들이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하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山仰會가 젊은 사람들을 적극 끌어들이어 유교윤리를 시대정신에 맞게 실천에 옮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산양회 활동에 성의껏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 모임을 이끌어 가고 회지를 발간하는 어려운 일들을 정성껏 도와주신 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양회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기를 빕니다. 2008년 새해에도 회원님들 건강을 누리시고 가정에 萬福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幸福하십시오.

2007년 12월 21일

河西 김인후의 道學 계승

편집주간 김재수

1. 조선 유학사에서의 하서의 위치

道統論을 맨 먼저 정리한 사람은 高峰 奇大升이다. 도통론을 통해서 河西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는 멀리 정몽주 길재로부터 내려와 그 師姪이라고 할 수 있는 김굉필의 師孫이 되며, 김안국의 직계 제자이니, 바로 조광조의 師姪이 된다. 즉 김굉필의 實踐儒學의 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여러 사회에 의해서 정암 조광조의 至治主義가 점점 빛을 잃어갈 때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道學과 지치주의의 재연을 자임하고 나온 이가 있으니 하서 김인후이다.

至治를 실현하려 했던 조광조의 도학 정신이 河西에 이르러 다시 제기되었던 것이다. 河西는 김안국의 제자다. 김안국은 조선의 性理學 도통을 直受한 인물이므로 김인후는 도통의 직계이고 조광조와는 師叔姪間이 된다. 때문에 河西는 정면으로 그 어려운 유업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中宗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기묘명현의 신원을 처음으로 주청한 것은 이러한 도통을 되살려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仁宗이 등극하자 무엇보다도 먼저 기묘명현을 신원되게 했으니, 인종과 하서의 목계를 알만하다.

2. 仁宗과의 관계

仁宗은 聖君의 자질을 타고 났다. 인종은 하서를 가장 신임했다. 밤늦게 찾아와 장차 그와 함께 펼칠 王道政治를 의논했다. 목죽도와 책과 배를 하사했다. 인종은 늘 위태로운 위험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가 필요했다. 윤원형에 의해서 하나씩 제거되고 하서만이 남아있었다.

만약 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도 조광조의 至治主義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김인후의 학문과의 遭遇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적으로 하서는 理氣를 포괄 회통한 大心の 철학자이다. 배타보다는 포용, 분석보다는 회통을 중시하였고, 모든 사물을 생명 차원에서 교감했다. 그의 학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心은 一身萬事의 주재자다. 그러나 심만으로 주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心에 내재한 理를 티아만 주재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心을 正位시켜야 하는데, 이 공부가 救放心의 立大本이요 밝혀진 大心(至理)을 다시 밖으로 확충해 가는 과정과 추진력이 修道요 至誠이다. 이 지성으로 盡己性 → 人性 → 物性해서 天地의 化育을 돕고 天地와 相參함으로써 우주 생명의 대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天地는 부모요, 인간은 형제이며, 만물은 同胞다. 어찌 異物로 대할 수 있겠는가? 오직 순수정감으로 교

류하고 사랑할 뿐이다. 천지를 슬퍼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正反, 是非, 得失, 好惡가 밝게 가려질 것이니 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河西는 이성적이면서도 감수성이 매우 풍부한 분이다. 사물을 항상 생명 차원에서 인식하고 그와 깊이 교감했다. 心學이 강한 분이다. 하서의「有所思」를 보면 君臣間을 떠나서 부부간을 노래했다. 仁宗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충성에는 悲劇的 황홀이 들어 있다. 결코 좌절이 아니라 언젠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비극적 황홀인 것이다. 비극적 황홀 속에는 언젠가는 떠오를 희망의 태양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였던 조광조와는 달리 온건과 과정을 중시하는 김안국의 학풍을 이어 받은河西는 조광조의 과격과 급진, 그리고 고집과 배타 등의 약점을 보완하기에 노력했다.

유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만기를 통어하는 군왕과 의합해야 한다.河西는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춘 행운아였다. 인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하서에게는 장차 정치적 이상을 펼치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요 절대적인 보장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년도 못되어 인종이 승하함으로써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과 슬픔을 맛보아야 했다. 시와 술로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다 50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3.河西의 문묘배향이 왜 늦었는가?

조선조에서 中宗 때 맨 먼저 정몽주가 문묘에 배향되었다. 왕실에서는 왕실에 협력한 유학자를 배향하려고 했으나 유림의 반대로 뜻을 이루

지 못했다. 권근을 배향하려 했으나 유림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문묘배향은 도통관과 관계된다. 中庸 서문은 도통론이다. 心學이다. 조정에서는 왕에게 비판적인 인물은 배제하려 했다. 하서는 150년 동안 배향되지 못했다. 남명 조식은 43번이나 문묘배향을 주청했으나 끝내 배향되지 못했다. 중종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조선조 역사상 가장 어진 임금인 正祖대에 와서야 하서는 비로소 문묘에 배향될 수 있었다. 다른 先正에 대한 왕의 비답은 10자 정도인데河西에 대한 正祖의 비답은 250자나 된다. 하서의 문묘 배향은 조선조 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하서가 그 시대 性理學者와 다른 점

4·7 논쟁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다. 현대의 심리학이나 인지론에 비춰보면 너무 엉성하고 허술하다. 유교의 道學은 실천의 세계이다. 中國에서는 4·7 논쟁을 잘 하지 않는다.

河西는 김굉필과 조광조의 도학을 계승한, 실천을 매우 중히 여긴 도학자이며 하서의 도학은 의리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도를 인간의 가치로서 구현하고자 했다. 성리학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도학을 실현하고자 했다. 요순이 행하였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하서의 主著가 불타 없어졌다고 하나 〈西銘事天圖〉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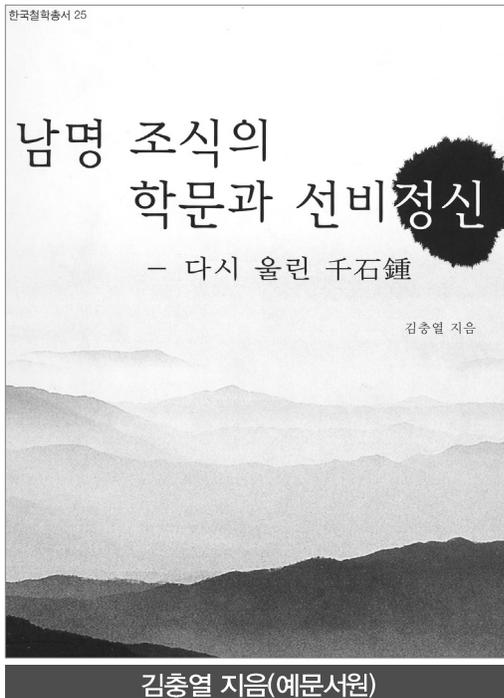
조선의 유학자들 가운데 장재의 西銘을 중요시한 유학자들은 별로 없다. 서명은 心學이다. 하서는 “태극은 德性的 본령이며 서명은 問學의

기틀이니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하서가 存德性 道問學을 그의 학문적 종지로 삼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서는 大學과 西銘을 수천 번 읽고 깊이 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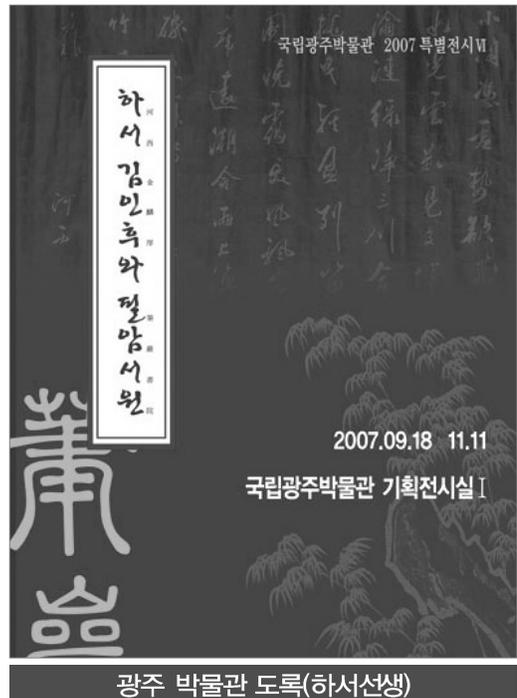
모재집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정추만이 김안국에게 천명도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하서는 남에게 아는 체하지 않았다. 포용적이다. 그런 河西가 기고봉을 시켜 퇴계와 논쟁했는지도 의문이다. 河西는 원시 유학의 생명사상을 정통으로 계승한 大心の 도학자이다.

한마디로 하서는 道學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大心の 도학자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도를 인간의 가치로 구현하고자 하는 至治主義를 실현하려는 꿈과 희망을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역사적 물줄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비극적 황홀의 삶을 살다 간 분이다. 이것이 하서를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하는 까닭이다.

※강의내용을 녹음하지 못하여서 메모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문맥상의 모든 잘못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 둡니다.



김충열 지음(예문서원)



광주 박물관 도록(하서선생)

河西 先生의 道學詩

경잠상인 권단에 쓰다 (敬岑上人, 卷端)

하늘 운행 원래가 아득도 하여
만상이 벌써 함께 나열되었네.
음양은 기축(機軸)을 발동시키고
오기(五氣)는 서로서로 풀무를 불어
해와 별은 저렇듯 밝게 별리고
산과 바다 열지어 구역이루니.
봄 가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온갖 초목 찬란히도 뻗어나가네.
동물도 그 유 어찌 하나이겠나
수륙의 만 가지가 각각 다른 걸.
사람 가장 신령하고 지혜로워서
어리석고 굵쁜 모든 물(物)에 비할까본가.
마음 하나 못 이치를 다 모아 들어
체와 용은 정밀하고 거친 것 갖추었느니.
오품(五品)은 정연히도 차례가 있어
일우(一隅)를 치켜들면 삼우(三隅)를 알아.
행해야 할 도리가 각각 있으니
잠시라도 떠나면 안 되느니라.
혹 때로는 혼암(昏暗)이 있긴 하지만
이는 역시 기품의 얽매임일세.
진성(眞性)은 엄폐하기 어려운 거라
우물로 기어드는 애를 볼 때는
진실로 이 마음을 미뤄 나가면
요순과 같은 사람 되다 뿐인가.
어찌하여 세교(世教)가 쇠해졌는지
인의를 소홀하다 생각만 하고

쓸린 듯이 지름길로 달려가다가
저 가시밭 진흙벌에 넘어지느냐.
우리 도는 무에서 유를 낳는데
너희 敎는 무에서 무로 끝나네.
인륜을 단절하고 성(性)을 없애니
말라붙은 나무에다 불 꺼진 재라.
문노니 이게 무슨 도리란 말고
제 몸 하나 편하자는 그 밖에 없네.
귀하도다 떳떳한 우리 사람은
나가는 길이 탄 데 있지를 앎아.
자기를 이루고 또 물(物)을 이루어
수용(須用)하는 공부를 닦아나가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히 서서
참찬(參贊)하게 되어야 참으로 양책.

題敬岑上人卷端

天運本冥漠 萬象森已俱
陰陽發機軸 五氣相吹吹
日星既昭陳 山海列成區
春英及秋實 草木賁紛敷
動類亦非一 水陸浩萬殊
惟人最靈智 不比諸物愚
一心會衆理 體用備精粗
五品秩有序 舉一反三隅
各有當行道 不可離須臾
雖時或有昏 亦因氣稟拘
眞性尙難掩 赤子入井扶
苟能擴以充 堯舜堪爲徒

云何世教衰 仁義爲跡迂
靡然走捷逕 躓彼荆棘塗
吾道無而有 汝教無而無
絕倫以滅性 灰死而木枯
問此何道理 未免私一軀
所以貴吾人 不在於他途
成己與成物 工夫自相須
卓然立兩間 參贊眞良圖

종산 적소에 있는 柳眉岩에게 또 쓰다

태극이라 다함없는 묘한 이치는
우주의 사이에 늘 유행하거나.
외론 몸 뉘 더불어 문의하리오
밤낮으로 그대 오길 기다리노라.

奉和柳眉岩 鍾山 謫所 又寄

太極無窮妙 流行宇宙間
偃偃誰與問 日夕待君還

기이(其二)

건(乾)은 아버지요 곤(坤)은 어머니라면
동포의 분은 더욱 깊을 수밖에.
가난과 곤궁쯤이야 원망을 앓소
백년이라 탕탕(蕩蕩)한 마음이로세.
乾父坤吾母
同胞分益深
貧窮吾不怨
蕩蕩百年心

경범(景范)이 준(尊)의 운에 차하였기로 내 또 답하다

요즘 와서 바야흐로 정신 손상 후회하니

술자리를 벌렸다서 참(眞)을 어지럽게 하리.
방탕하게 풀어놓아 끝내 의(義)를 잃으리오
이때의 마음 가닥 몹시도 산란하이.

景范次尊韻 余又答之

比來方悔枉傷神
杯爵雖陳不廢眞
放意豈成終失義
此時心緒轉紛綸

기이(其二)

우물(尤物)이란 사람 마음 바뀌지게 하는 거라
자네 시를 곧 바로 창 앞에 붙였다네.
경부(經傳)를 연구하는 그밖에 일 없으니
우리 함께 공을 들여 성현을 배워 보세.
尤物移人古所傳
君詩旋付小牕前
沈潛經傳無他事
與子同功學聖賢.

기삼(其三)

경서 속의 미언(微言)을 어느 뉘 전해주리
어수선한 속루(俗累)들 앞에 가득 찼으니 원.
자양(紫陽)이라 한 맥이 천지에 존재하니
후생의 어떤 이가 성현을 바라는지.
書上微言世孰傳
總總俗累動盈前
紫陽一脈存天地
後死何人希聖賢

기사(其四)

만나는 사람마다 술 끊으라 말하지만

만약 술을 끊는다면 병 아니 물러나는 걸.
욕심만을 따르는 건 내 역시 부끄러운 일
경(經) 연구코 술 마시면 혹시 해가 없을는지.

相逢盡說斷杯觴
若斷杯觴病不亡
倘欲忘生吾亦恥
窮經飲酒或無傷

기오(其五)

의리의 길머리엔 사생을 결단해야
진지(眞知)와 실천으로 업은 능히 정미롭네.
모름지기 명선(明善)따라 성신(誠身)을 배워 나가
경을 주로 삼는 날에 천하는 평균하리.

義利途頭決死生
眞知實踐業能精
須從明善誠身學
主敬終成天下平

옹어서 경범(景范)과 중명(仲明)에게 보이다

도의를 중히 알면 공리(功利)는 경한 거라
공과 사, 이(理)와 욕(欲)은 진실로 분명하이.
마음이 거칠면 지(知)가 항상 막히는 법
담(膽)이 용감하면 결코 소행을 의심 않네.

吟示景范仲明

道義重時功利輕
公私理欲儘分明
心麤自覺知常滯
膽勇決不疑所行

기이(其二)

문왕은 나의 스승 순 임금은 어떤 분인고

전언(前言)을 독신하여 힘을 다해 행한 분들.
예 이제 성(聖)과 우(愚)는 받은 성(性) 한가지라
진흙과 모래를 걸러내면 물이 도로 맑아지네.

文王我師舜何人
篤信前言力去行
今古聖愚同一性
泥沙淘盡水澄清

기삼(其三)

배우기란 배를 밀어 물 오르기과 마찬가지로
노를 한번 늦추면 문득 뒤로 물러가네.
유유 범범(悠悠泛泛) 마침내 이루기 어려우니
목마를 때 물 마시듯 배 주릴 때 밥 먹듯이.

爲學如掌上水船
一篙纔緩便回遭
悠悠泛泛終難濟
要似飢餐渴飲然.

기사(其四)

몸과 마음 안과 밖에 경(敬)은 다 해당하고
사리와 지행은 의(義)가 모두 재단하네.
본을 세우자면 항상 계구(戒懼)를 해야 하고
연기(研幾)를 하면 어찌안배(安排)에 애를 쓰리.

身心內外敬兼該
事理知行義總裁
立本切宜常戒懼
研幾何有費安排

기오(其五)

일상생활 어디에도 이 마음을 불러들여
사의라곤 감히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공평하면 이(理)도 장차 얻으리니
판 데 찾지 않는단 걸 익숙하면 알게 되네.

日用常常喚此心
莫教私意敢相侵
心公理得行將去
熟後方知不外尋

기육(其六)

대학을 사람마다 천근(淺近)하게 보지마는
성공(聖功)은 이 아니면 강구하기 어렵다네.
마디마디 공부든 걸 알아야 하다마다
익히 읽고 정히 생각 허소하게 보지 마소
大學人皆淺近看
聖功非此講求難
須知節節工夫在
熟讀精思莫漫觀

기구(其九)

의심 없다 말하지만 실로 꼭 없겠는가
글자마다 연구하고 글귀마다 생각하게.
장구로 못 통하면 혹은(或問)을 참조하오
오래 보면 얼음 풀려 물이 동으로 가네.
無疑未必實無疑
字字研窮句句思
章句未通參或問
久看冰釋水東之

기십(其十)

대학 옳게 못 읽어 공부만 허비하고
일신의 공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오.
무슨 수로 비범한 옛 버릇 벗어나서
두루 두루 정명하여 온갖 이치 통할거나.
枉費功夫大學中
悠悠未覺日新功
何方脫略卑凡習

周遍精明萬理通

기십일(其十一)

일상생활 사이에 도는 들어 있는거라
성현의 만든 법에 진실을 볼 수 있네.
참 옳음과 참 그름을 진실로 알아야만
나가는 길 정하기에 어려움을 보지 않아.
道在尋常日用間
聖賢成法儘堪看
真知真是真非處
立定前行不見難

기십이(其十二)

「가는 것이 이와 같다」 냇가에서 하신 공자 말씀
술개 날자 고기 뿜은 천연(天淵)에 나타나네.
유명 원근 어디나 도 아닌 것 없으니
광대하고 정미해라 진실로 자연일레.
逝者如斯子在川
鳶魚飛躍見天淵
幽明遠近無非道
廣大精微實自然

기십삼(其十三)

보고 듣기 이전에 계신(戒愼)하고 공구(恐懼)하며
학문(學問)이라 심사(心思)라 분변이 명백해야.
밝게 선(善)을 가리고 행(行) 또한 독실해서
남 열 번에 나의 천 번 공부는 거기 있네.
丁寧戒懼嗜聞前
學問心思辨決然
擇善旣明行又篤
工夫惟在十能千

기십사(其十四)

신·심이라 정·성(情性)이라 인륜의 면에 있어
 치곡(致曲)으로 명성(明誠)으로 일마다
 참스러워야.
 천지나 고금이나 이치는 마찬가지로
 글을 보고 물(物)에 응해 두 가지 다 원칙대로
 身心情性與人倫
 致曲明誠事事真
 天地古今同一理
 看書應物兩循循

기십오(其十五)

시의 도는 다름 아닌 성정이 근본이라
 읊어보면 선과 악이 각기 다 분명커든.
 조용히 바로 곧장 화평한 데 이르면
 사물이 앞에 올 때 이치 절로 드러나네.
 詩道非他本性情
 吟來善惡各分明
 從容直到和平處
 事物當前理自呈

기십륙(其十六)

역(易)의 도 정미하여 통하기 쉽잖지만
 기미(幾微) 살피는 것은 역시 마음 속에 있네.
 알래라 적(寂)과 감(感)은 본대 서로 연관된 것
 태극(太極)에는 언제나 주경(主敬) 공부 들었거든.
 易道精微未易通
 研幾亦在一心中
 須知寂感元相濟
 太極常涵主敬功

기십칠(其十七)

전부터 시경 주역 이해도 했지만은

힘 얻음은 논어 맹자같은 게 없더구만.
 이는 바로 회옹(晦翁)의 단적(端的)인 말일진대
 제일 먼저 대학에 힘을 쓰고 넘어가야.
 從前理會詩兼易
 得力無如語孟多
 此是晦翁端的語
 也先大學用功過

학자(學者)에게 보이다

태극의 묘한 이치 말학은 그 어찌하리
 소리 없고 냄 없으랴 도는 성(誠)을 말미암네.
 이오(二五)가 유행하여 진(眞)과 정(精)이 모이니
 남녀가 이뤄지고 만물이 나느니라.

末元學者

末學其如太極妙
 無聲無臭道由誠
 流行二五眞精聚
 男女成來萬物生

기이(其二)

사람 그 가운데 빼어나 품부 가장 신령하니
 형(形) 생기면 신(神) 발(發)하여 성(性)이
 몇기 어려우이.
 고요(靜)를 주로 하고 욕(欲)이 절대 없어야만의
 (義)의 정(正)과 인의 중(中)이 차례로 나타나네.
 人秀其中稟最靈
 形生神發性難停
 寂然主靜須無欲
 義正仁中次第形

김인후의 도학과 성리학

오종일 (전주대학교 교수)

1) 河西의 도학에 대한 이해

하서의 학문은 의리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이는 일반적인 조선조 도학자들의 학문적 특징이며 또한 성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도학이란 성리학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는 중종의 등장과 함께 조정에 참여하게 된 신진 사림들이 내세웠던 학풍이었다. 그 정신은 요(堯·舜)이 행하였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인데,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유학의 근본 정신을 배우자는 데에 있었다. 연산군 시대의 어두운 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유학의 본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요·순의 도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河西는 기묘사림의 정신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학문은 도학을 그 본령으로 하게 된 것이다. 요·순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을 통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 도학을 구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성리학이기 때문이다.

河西의 학문은 이와 같이 성리학 연구를 통하여 도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성리학 연구를 통하여 요(堯)·순(舜)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또한 「천명도」를 통하여 우주와 인간이 하나임을 밝혀 중

화(中和) 사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河西의 학문적 기반

이와 같은 도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송대(宋代)의 성리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하서는 그러므로 평소에 <太極圖說>, <西銘> 등을 읽고 그 깊은 의미를 찾았으며, 이를 정밀하게 익히기를 천 번은 두루하였다. <太極圖說>이란 주렴계(周濂溪)(1017~1073)가 창안한 것으로서 성리학의 시원(始原)이 된다. 이 <太極圖說>은 우주의 생겨남으로부터 만물의 형성에 이르기까지를 도표로 설명하고 거기에 도설(圖說)을 붙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알면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그와 같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장횡거(張橫渠)가 쓴 <西銘>이다. 하서가 이 두 책을 학문 방법으로 삼은 것은, 이 책들이 성리학의 기본서이지만 이를 통하여 도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河西는 이에 대하여 “태극은 덕성의 본령이며 <西銘>은 問學의 기틀이니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하서가 존덕성(存德性) 도문학(道問學)을 그의 학문적 종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곧 인도(人道)에서 천도(天道)에 이르는 중화사상의 본지(本旨)로

서, 인간의 문제로부터 우주의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하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 방법을 〈小學〉과 〈大學〉에서 찾았다.

〈小學〉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격 도야의 방법이며 〈大學〉은 〈小學〉 규범을 완성하는 덕성의 함양 방법이다. 〈小學〉의 가르침이 下學을 이루는 것이라면 〈大學〉은 상달(上達)함에 있다. 하서는 “반드시 〈小學〉을 읽고, 〈大學〉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하학으로부터 상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학(道學)이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도(道)를 인간의 가치로서 구현하고자한 것이다. 도학의 정치를 지치(至治)라고 한 것은 하늘에서와 같은 지극한 도로써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그가 요·순이었다. 그러므로 요·순이 이루었던 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천명에 대한 해명이었다.

하서는 그러므로 〈대학〉, 〈논어〉와 함께 〈시경〉, 〈서경〉, 〈주역〉을 공부하고 〈태극도〉와 〈서명〉을 익혔다. 이는 성리학 연구와 함께 〈시경〉을 통하여 성정(性情)의 올바름을 구하고 〈서경〉을 통하여 인심의 위태함을 경계하고 도심의 은밀함을 발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주역〉을 통하여 만물의 형성과 그 운행에 대한 실체를 터득하는 일이었다. 하서는 이와 같은 학문 방법을 통하여 마침내 인간과 우주가 하나임을 밝히는 도설(圖說)을 완성하였으니, 그것이 하서의 「천명도」였다. 「천명도」는 천명을 설명하는 학문적 정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하서는 요·순의 지치를 이루기 위하여 도학 정치를 표방하고 그와 같은 세계에 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송학(宋學)

을 배웠으며, 나아가 시(詩)·서(書)·역(易)을 이해하여 마침내 「천명도(天命圖)」를 제시하여 자신의 학문적 결실을 제시한 것이다.

3)성리학 연구와 하서 천명도

하서의 성리학 연구 업적은 여러 가지 많지만 그가 그린 천명도는 그 결정(結晶)이라 할 수 있다.

「천명도」는 처음 정지운이 그린 것이다. 정지운이 김정국의 제자라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정지운이 천명도를 그리게 된 것은 김정국이 귀양에서 풀려나 서울로 가게 되자 그의 동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주자 학이 수입되자 양촌 권근(陽村 權近)(1352~1409)은 「태극도」를 보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를 그렸는데, 이 그림은 그 제목처럼 하늘과 인간과 심(心)과 성(性)은 하나로 합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운은 「태극도」와 「천인심성합일지도」를 참고하여 「천명도」를 그렸는데,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한 논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지운이 자기가 처음 그린 「천명도」를 세상에 내놓기 이전에 하서에게 가지고 와서 물었다는 점이다.

하서가 40세 되던 8월, 옥과 현감에서 물러나 순창의 점암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을 때, 정지운은 자기가 그린 「천명도」를 들고 하서를 찾아왔다. 이를 본 하서는 정지운의 천명도를 보고 천도의 이치를 감탄하는 글을 써 준 다음에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천명도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어찌 함부로 들

여다보고, 헤아리려는 사람들의 모의적인 수단으로 는 될 법이나 할 일인가. 나는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나아가지도 못한 사람이라. 이 그림을 펴 보니 서글픈 생각이 없지 않다. 정군 정이(鄭君 靜而-靜 而是 정지운의 字다)가 조석 간에 서올로 올라가게 되니 서로 생각하는 정은 말로 다할 수 없기에 우선 이 글을 천명도의 후면에 써서 주는 것이다. 가정 기유 8월 김후지는 쓰다.”

이 후제(後題)를 보면 정지운이 「천명도」를 그리자마자 하서를 찾아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서는 또한 그에 대한 평가의 글과 함께 이와 같이 격려하였던 것이다. 하서는 또한 정지운의 「천명도」를 보고, 이에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뜻에 의하여 새로운 천명도를 그렸던 것이니, 그것이 세상에 전하는 「하서 천명도」이다. 이때 탄생한 하서의 천명도는 정지운의 천명도와 함께 조선조 성리학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손꼽힌다.

정지운은 그후 자신의 「천명도」를 김안국·김정국에게 물었으나 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한 채 곧 돌아가게 되었고, 이황이 이를 수정하여 준 때가 명종 8년(1553년)이었다. 그 후 명종 13년(1558년) 기대승이 과거에 합격하고 이황과 만나, 그 이듬해부터 이에 대한 논변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황과 기대승의 논변이 시작된 때는 하서가 정지운을 만나서 천명도에 대한 후제를 써주었던 가정 기유(명종 4년)로부터 9년 후의 일이었다.

河西의 성리학 연구는 남다른 바가 있다. 이는 그가 정지운의 천명도를 보고 느낀 바를 적은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중요한 특징은 만물화생 현상을 천명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주렴계는 「태극도」에서 만물의 生生은 무극에 근원을 둔 태극의 작용으로 보았다. 주자는 이를 리(理)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서는 “하늘의 도가 깊고 멀어서 다함이 없으니, 일찍이 생생의 이치가 간단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만물의 생생은 깊고 그윽한 천명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는 태극을 리(理)로 이해하고 리의 작용에 의하여 만물이 생겨난다는 「태극도」의 정신보다 천명을 더욱 중시한 현상이다. 이는 하서의 「경」(敬)의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서 49세 때는 또한 기대승이 이황과 「태극과 음양을 일물(一物)로 볼 것인가 이물(二物)로 볼 것인가」 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었다. 기대승이 이에 대한 의견을 하서에게 묻자, 하서는 일물설이 옳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 이듬해에 이황이 다시 기대승에게 자기 사위 종룡의 편에 「태극과 음양은 이물(二物)이다」는 편지를 보내자, 하서는 그 편지를 먼저 보고 이황에게 태극과 음양을 이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편지를 보냈다.

기대승은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한 전말을 모두 적어서 이를 이황에게 질문하였는데 이황 또한 하서와 견해를 함께하였다. 기대승은 또한 하서가 세상을 떠나자 이황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벼슬을 그만 두고 돌아와 하서 선생에게 의지하여 전에 배운 것을 강습하려 했는데, 선생께서 1월 16일 갑자기 별세하셨으니 사도(斯道)의 불행이 클 뿐 아니라 저의 불행이 더욱 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서의 「천명도」는 조선조 성리학 발전의 토대를 쌓은 것이었고, 태극이기에 대한 견해 또한 매우 깊은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초록(抄錄)

김하서는 학문과 문장이 당세에 뛰어났으며, 급류(急流)속에서 기미를 보아 마침내 원우(元祐)의 완인이 되었거니와 그 절의의 큼과 출처의 바름은 더불어 짝할 이 드물었다.

젊었을 적에 인종에게 알아줌을 입어 은우(恩遇)가 상례를 벗어났으며 매양 친히 직려(直廬)에 거동하여 조용히 의난(疑難)처를 묻곤 하였다. 그 진상(進上)한 묵죽시는 지금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격동 송양하게 되며 심지어 천문(天文), 지리, 의약(醫藥), 복서(卜筮), 음양(陰陽), 율력(律曆), 명물(名物), 도수(度數)에까지도 통달효해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대개 천자(天姿)가 우뚝이 뛰어나서 자득으로 그러한 것이다.

근일에 서울과 외지의 유생들이 선정 조문열공(趙文烈公: 憲) 김문경공(金文敬公: 集)을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자는 청으로써 연달아 소를 하여 부르짖고 있으니 이는 확실히 선배 명석의 정해진 공론이라 어찌 불가하다 말할 수 있으랴, 진실로 종향의 청이 없다면 모르겠거니와 만약 있다면 우리 조정 사백 년에 김문정공(金文靖公)을 놓아두고 뉘를 먼저 하겠는가. 유생들의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서 단지 문열, 문경에만 급급하며 일찍이 한마디 말도 문정에게는 미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정히 의심을 상고할 곳이 없고 강구(講究)가 바탕이 없어 그

국조의 전고(典故)와 도학의 연원에 대하여 모두 감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심히 개석(慨惜)히 여기노라.

세상에서 이르기를, 「기고봉(奇高峯)의 사칠 왕복서(四七往復書)가 많이 하서의 손에서 나왔다고들 한다. 그는 대개 하서의 생(甥)이다.」

그 잠사(蠶絲)와 우모(牛毛)같은 것을 분석하고 변화함에 있어서는 당시 제현(諸賢)들의 미치지 못한 바이며 정문청공(鄭文淸公: 澈)같은 평소의 개결(介潔)한 지조로도 하서가 거문고를 타며 술자리를 벌려 마시며 도를 논하는 것을 한 번 보고는 문득 심신이 취하여 저절로 굴복됨을 깨달았으니 이 두어 가지 일로써 그 조예가 초절(超絶)하고 기상이 호매함을 엿볼 수 있다. 선배들이 하서를 사백 년에 제일의 인물로 삼은 것은 진실로 격언(格言)이라 하겠다.

문묘에 종사(從祀)한 여러 어진 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로서는 다 광감(曠感)하여 공경을 바치는 바이지만 그 중에도 가장 선정 김하서는 유독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일찍이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전에 발명(發明) 못한 것을 발명하여 낙민(洛閔)의 추서(墜緒)를 곧장 접(接)한 것은 실로 하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겼었는데 상기도 부자(夫子)의 사당에 배향을 못하였으니 내가 군사(君師)의 지위에

있으면서 마침내 사문(斯文)의 대일통(大一統)에 대하여 표하여 내걸어 밝히지 못한다면 어찌 평소에 성현의 글을 읽고 심성(心性)의 깊이를 즐거워하여 지나거나 한 생각이 문치(文治)를 숭상해 보겠다는 그 본의(本意)이겠느냐. 의논이 대동하여 성한 예를 거행하게 되었으니 수백 년 미처 못했던 일이 오늘날에 이루어진 셈이라, 이 역시 기다림이 있었다고 보아야 마땅하겠다.

도덕, 문장, 절의가 겸비한 자는 오직 하서 김문정 그분이 아니겠느냐. 다시 그 유집(遺集)을 보니 기상이 청명하고 쇠락(灑落)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천 년의 아래에 흥기(興起)하게 할만하다. 송선정(宋先正)이 지은 비문 속에 심히 자상히 발휘되었으니 하서가 송선정의 힘을 빌려 이름이 더욱 드러났다 하겠다.

正祖 《弘齋全書》抄錄

金河西學問文章，迥出當世，見幾於急流，得爲元祐完人，其節義之大，出處之正，罕與爲比，而少時受知 仁廟恩遇出常，每親臨直廬，從容問難，其所進墨竹詩，至今見之，令人激仰，至於天文地理醫藥卜筮陰陽律曆名物度數，無不通曉，蓋天姿卓絕，自得而然也。

近日，京外儒生，以先正趙文烈金文敬從祀文廟之請，連爲疏顯，此固先輩名碩，所定之論，烏！可日不可，而苟無從祀之請則已，如有之，我朝四百年，捨金文靖，奚先哉？儒生輩，意不出此，只斷斷於文烈文敬，而未嘗一言，或及於文靖，此正坐稽疑無處，講究無素，其於國朝典故，道學淵源，俱所昧昧，故其爲言也。(此句上下，疑有關文)予甚慨惜。

世謂 ‘奇高峯四七往復書，多出於河西之手’，

蓋是河西之甥，(謹按，高峯河西之孫南重之外舅，則甥字，恐是誤。)而蠶絲牛毛，剖析辨破，當時諸賢之所未能及，而鄭文清以平素潔介之操，一見河西張琴列樽，暢飲論道，便覺神醉而心服，於此數事，可以見造詣之超絕，氣像之豪邁，先輩以河西爲四百年第一人物者，誠格言耳。

我東諸賢之從祀文廟，孰非予所曠感而致敬？而最是先正金河西，獨契予心，嘗以爲東方理學之發前未發，直接洛閩之墜緒，實自河西始，尚未配食於夫子之廡，予居君師之位，乃於斯文大一統，不得表揭而闡明，則是豈平生讀聖賢之書，說心性之奧，寤寐一念，右文爲治之意哉？詢謀大同，盛禮誕舉，數百年未遑之典，成於今日，蓋亦有待者，存焉。

道德文章節義兼備者，惟河西金文正，其人乎！復見其遺集，氣像清明灑落，可令人興起於千載之下，而宋先正所撰碑文中，發揮甚詳，河西得先正，而名益彰矣。

河西 金麟厚 先生의 生涯와 交遊 樣相

金東河(瑞江情報大 敎授)

1. 生涯 概括

1-1 成長·修學期

河西는 1510년(중종 5) 全羅道 長城縣 大麥洞(현 장성군 황룡면 맥동리)에서 參奉公(諱 齡)과 玉川趙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字는 厚之, 號는 湛齋 또는 河西, 諡號는 文正이다.

先生은 어려서부터 英特하였고 文才가 숙성하여서 神童이라고 불릴 만큼 기이한 재주를 지녔다. 이미 5세의 나이에 시를 지었으며, 9세 때에는 服齋 奇遵이 그를 만나보고 奇童이라 칭찬하며 장차 世子臣이 될 것이라고 예언할 정도였다.

河西는 10세 때 全羅監司로 부임한 慕齋 金安國의 문하에 들어가 小學을 배웠으며, 18세 때에는 己卯土禍로 인해 同福에 귀양 와 있던 新齋 崔山斗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는데, 新齋는 先生을 매양 秋水水壺(가을의 맑은 물과 얼음을 담은 옥 항아리)라고 칭찬하곤 했다. 이후 19세 때 成均館에서 大提學 李荇이 주최한 詩會에서 壯元을 했고, 22세 때 徐敬德, 成運, 白仁傑, 鄭惟吉 등과 함께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다. 24세 때 泮宮에서 退溪 李滉과 함께 수학하였는데, 서로 志氣가 맞아 깊이 사귀며 학문에 정진했으니, “退溪와 교류한 사람은 오직 河西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退溪言行錄》의 기록은 그 때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1-2 出仕·致仕期

河西는 31세 때인 1540년(중종 35) 文科에 급제하여 承文院 副正字가 된 데 이어, 32세 때 賜暇讀書에 뽑혀 湖堂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함께 湖堂에 오른 13인과 修稹를 맺었는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河西를 비롯하여 良齋 崔演, 十省堂 嚴昕, 秋波 宋麒壽, 松齋 羅世纘, 菊磻 尹鉉, 竹溪 任說, 退溪 李滉, 錦湖 林亨秀, 寓庵 金澍, 尙德齋 鄭惟吉, 汲古齋 李洪男, 好學齋 閔箕 등이다. 湖堂에 오른 그 해 겨울 弘文館 正字 曺經筵典經 春秋館記事官이 되고, 이듬해 7월 弘文館 著作으로 승진하였다. 34세가 되던 해 4월 다시 弘文館 博士 兼 世子侍講院說書로 영전하여 훗날의 仁宗인 世子を 輔導하며 군신간의 아름다운 교분을 맺었다. 6월에 弘文館 副修撰 兼 經筵 檢討官에 올랐으나 머지않아 조정에 환란이 닥칠 것을 우려하고 늙으신 아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잠시 고향에 머물러 있다가, 겨울 선달에 玉果縣監으로 임명되고 春秋館 職을 겸하게 되었다. 中宗이 昇遐하고 인종이 즉위한 뒤 국상 조문을 온 명나라 張承憲 일행을 위한 製述官으로 임명되어 상경한 뒤 바로 귀임하였으나, 7월에 갑작스런 仁宗의 昇遐 소식을 듣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벼슬을 그만둔 이후,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불과 6년 남짓한 짧은 관직 생활이었다.

I-3 講學·著述期

河西는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러 차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오로지 講學과 學問 研究 및 著述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37세 때 6월 <孝經刊誤跋>을, 40세 때에는 <大學講義跋>을 지었다. 39세가 되던 해인 1548년 거처를 淳昌 鮎巖村으로 옮겨 초당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선비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였다. 48세 때 <周易觀象篇>과 <西銘事天圖>를 저술하였으며, 49세 때에는 高峰 奇大升과 太極圖說을 강론했다. 50세 때에는 一齋 李恒에게 보낸 글에서 太極陰陽을 하나로 본 것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 해 겨울에는 高峰과 四端七情의 학설을 강론함으로써, 훗날 한국의 論爭史에 길이 남을 退溪와 高峰 간의 四端七情論의 단초를 제공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整菴 羅欽順의 <人心道心說>을 논하면서 蘇齋 盧守愼의 <人心道心辨>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河西는 이듬해인 1560년 5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세속적 명리를 초월하여 보다 근원적인 진리 탐구와 저술 활동에만 전념했다. 이는 “변함없는 충성과 곧은 절개 또한 학문에서 나온 것”이라든가 “사저에 거처하면서부터는 성현의 학문에 전념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사색하고 강구하며 차례대로 힘써서 실천하니, 만년에는 조예가 더욱 정밀하고 깊었다.”는 평에서도 확인된다. 그 결과河西는 海東의 濂溪로 칭송되며, 마침내 正祖 때 文廟에 配享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서의 인생은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벼슬길에 나아갔던 6년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修學과 學問 研究, 講學과 著述 등의 활동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III. 交遊 人物과 交遊詩

河西는 1600여 수나 되는 방대한 양의 漢詩를 남겨 놓았는데, 대다수가 인물과의 교유에 관계된 것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만도 270여 명에 이른다. 이는 先生의 다정다감한 성품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先生의 漢詩에 나타난 交遊 人物을, 姻婭와 師弟, 泮宮과 湖堂修稭, 溪山騷客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姻婭와 師弟

姻婭란 사위의 아버지인 사돈을 뜻하는 ‘婭’과 여자 형제의 남편 사이인 同壻끼리를 뜻하는 ‘婭’가 합쳐진 말이다. 姻戚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婚姻으로 맺어진 관계라 할 수 있다. 先生의 작품에는 姻婭와 師弟의 관계로 형성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山翁起洗菖蒲葉

산 늙은이 일어나 창포 잎에 세수하고,

喜聽東床笑語聲

사위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 기쁘게 들네.

頃刻煩痲同一散

번뇌와 병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니,

恨無醪醕置千巵

천 병의 맛있는 술이 없는 게 한이라네.

(卷之七 七言絕句 示景范)

사위와 만나 정담을 나누는, 정겨움이 흠뻑 묻어나는 작품이다. 山翁은 작자를, 東床이란 남의 집 사위를 뜻하는 말로, 여기서 趙希文을 지칭한다, 사위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병이나 세상의 번뇌마저 사라져버린 것만 같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름다운 술이 천 병이 있어도 오히려 부족하리라. 景范은 바로 趙希文(1527~1578)

을 지칭한다. 趙希文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字는 景范, 號는 月溪로, 학문과 인격이 고매하고 행실이 돈독했던 인물이다. 1553년(명종 8) 別試文科에 乙科로 급제한 후, 1556년 承文院 正字를 시작으로, 司憲府掌書, 司諫院獻納, 이조 좌랑, 홍문관수찬, 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河西가 玉果縣監으로 있을 때 그를 사위로 삼은 인연으로, 河西의 사위이자 문인이 된 것이다.

幾歲相思苦

몇 해 동안을 그리워 하며 괴로워했던가,

悠悠瀟灑園

멀고 아득한 소쇄원 그곳.

斯人今已矣

그 사람도 이제는 세상을 떠났으니,

病我復何言

병든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리오.

白髮明垂領

흰 머리는 옷깃까지 허영게 드리웠고,

靑山黯斷魂

청산은 어둑하여 넋이 나가네.

空餘五曲水

속절없이 다섯 굽이 물만 남았으니,

臥想沂真源

누워 신선 세계를 찾아갈 것 생각하네.

(卷之八 五言律詩〈瀟灑園主人挽〉)

河西와 가장 가까웠던 인물 중의 하나인 梁彥鎮의 죽음을 哀悼한 시다. 작자가 있는 곳이 故人이 살았던 瀟灑園과는 너무 멀어서 몇 해 동안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했다. 그런데 瀟灑翁은 어느새 故人이 되었고, 자신도 백발이 옷깃에 드리워질 정도로 늙어 있다. 청산을 바라보니 어둑어둑하여 자신의 혼마저 끊어지는 것만 같다. 頸聯의 ‘黯’은 작자의 심정이 투영된 말이다. 마침

내 작자는 다섯 굽이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 보면, 신선 세계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상상해 본다. ‘真源’이란 神仙이 산다는 천상 세계다. 梁彥鎮(1503-1557)은 이름이 山甫, 號는 瀟灑翁으로 靜庵 趙光祖의 문인이다. 스승인 靜庵이 己卯士禍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벼슬을 멀리한 채 星山에 瀟灑園을 짓고, 평생을 학문과 시를 벗 삼아 살았던 인물이다. 은둔한 두 분이요 보면 현실 인식이나 추구하는 바가 서로 비슷하여 더욱 두터운 교분을 나눌 수 있었으리라. 유독 河西가 瀟灑園을 좋아한 것은 소쇄원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의 둘째 딸과 梁彥鎮의 아들 혼인으로 맺어진 친분이 보다 크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즉 소쇄원의 아들 子澂은 河西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河西는 瀟灑翁에게 각별한 호의를 보였는데, 특히 〈奉贈瀟灑園〉란 시에서는 소쇄원 주인을 세속을 초월한 인물이자 行善을 일삼는 군자로 묘사한 바 있다.

昔病君來見

예전에 병들었을 때 그대가 나를 보러 왔는데,

于今尚未忘

지금까지도 오히려 잊지를 못하네.

茲辰九月望

지금 이 때는 다름 아닌 구월 보름날,

相對兩茫茫

서로 대하니 우리 둘 다 아득하구려.

(卷之五 五言絕句〈喜梁朔來〉)

같은 제목으로 쓰인 두 수 중 그 첫 번째 작품이다. 사위인 梁子徵이 자신을 찾아온 기쁨을 나타낸 시다. 작자는 예전에 병이 났을 때 사위가 찾아와준 정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구월 보름을 맞아 다시 찾아왔으니 그 기쁨이야 오죽하겠는가. 結句의 ‘茫茫’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할 말

을 잊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다. 梁子徵(1523-1594)은 字는 仲明, 號는 鼓巖이며, 瀟灑翁의 아들이다. 河西의 둘째 사위이자 문인으로, 河西의 행장을 지었다. 河西의 年譜에 보면 39세조에 趙希文과 梁子徵이 매화 가지를 꺾어 들고서 河西를 모시는 가운데 술을 마시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病裏悠悠日月侵

병중에 세월은 유유히 흘러가니,

親朋一字抵千金

친한 친구 한 글자는 천금에 해당하네.

夢君連夜見君意

밤마다 그대 꿈꿔 그대 뜻을 아는데

奈又迢迢南海濶

어찌하여 또 머나먼 남해로 가려는지

(卷之七 七言絕句 〈寄仁仲〉)

南海로 가려는 柳希春을 염려하는 애뜻한 마음이 가슴을 저미게 한다. 轉·結句에는 자신을 친구로 생각해 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남해로 다시 떠나려는 상대에 대한 야속함이 어우러져 있다. 柳希春은 字는 仁仲이며, 號는 眉巖으로, 부인은 여류시인인 宋德奉이다. 처음에는 崔山斗에게 배우고, 뒤에 金安國에게 사사했다. 1538년(중종 33) 별시문과에 급제했으며, 1544년 사가독서 후 수찬, 정언 등을 지냈다. 1546년 大尹과 小尹의 알력으로 비롯된 乙巳土禍가 일어나자 파직되어 귀향했다. 1547년 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함경북도 종성으로 移配되었던 인물이다. 河西가 성균관에서 수학할 때 그가 學諭로 있으면서 河西의 병간호를 성심으로 하여 각별한 우정을 쌓은 사이다. 河西가 얼마나 다정한 인물이었는가는 眉巖이 유배를 가게 되자 아무도 혼인하려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셋째 딸을 시집보낸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梨花滿樹日黃昏

배꽃은 만발하고 날은 벌써 황혼인데,

疎木斜風獨依門

성긴 나무 비껴 바람 홀로 문에 기댄노라.

想得主人天上臥

아마도 주인님은 천상에 누워

不堪淸思入詩魂

맑은 생각이 시혼에 드는 걸 못이기겠지.

(卷之六 七言絕句 〈訪金著作太容不遇而作〉)

河西가 同壻인 金若默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낸 시다. 배꽃이 만발한 황혼 무렵,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에 기댄 채 서 있다. 주인이 다름 아닌 同壻인 金若默이고 보니 천상에 누워 시상을 가다듬고 있으리라 상상해 본 것이다. 金若默(1500~1558)은 明宗 때의 文臣으로 자는 太容, 號는 誠齋며, 河西의 同壻다. 1540년(중종 35) 文科에 급제한 뒤, 1552년(명종 7)에 韓山郡守가 되어 근검과 선정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그 후, 司憲府執義, 楊州牧使, 內資寺正을 지냈던 인물이다. 河西의 太容에 대한 정은 남달라, 太容을 위해 쓴 輓詞를 비롯하여 10제 14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河西의 漢詩 중에는 姻啞와 師弟에 관계된 인물을 다룬 작품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趙希文이 26수로 가장 많고, 梁彥鎮 23수, 柳希春 22수, 梁子澂 16수, 金若默 15수로 이를 모두 합하면 무려 100수가 넘는다.

▶ 전주 하서 선생 학술강연 대성황

김충열(학술원 회원)박사, 최영성 박사 강연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하서 선생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전북 유학사를 정리하는 학술강연회가 지난 6월 21일 전주시 덕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필암서원 산양회(회장 박종달)와 전북 유림이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한 산양회 19회 학술강연회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전북 유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것.

이 날 행사는 산양회 박래호 총무의 개회 선언과 이하영 전북유도회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강연회에서 박종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서 깊은 유학의 고장 전주에서 열리는 하서 김인후 선생 강연을 통해 유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재신 전북 전교육감이 축사를 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박종달 회장, 유한상 고문, 김택수 도유사 등 박태근(광주) 신두천(전남) 유도회장, 정상윤 광주향교 전교를 비롯한 광주전남 유림과 김종섭, 정운염, 양만정, 임동익(전북향교재단 이사장), 이세환 씨 등을 비롯한 전북 유림 5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고려대 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술원 회원인 김충열 박사는 '하서 김인후의 道學 계승'이라는 주제로 조선 儒學史에서의河西의 위치, 하서와 인종과의 관계, 하서의 문묘 배향은 왜 늦어졌는가, 하서가 그 시대 성리학자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강연했다. 김 박사는, 하서는 모재 김안국의 제자로 조광조와는 師叔姪이 되므로 도통의 직계이기 때문에 기묘명현의 신원을 주청했으며 仁宗과 의합하여



2007. 6. 21 전주 덕진구청 대강당

至治主義를 실현하려 했으나 인종의 승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사람의 지치주의가 하서에 의해서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하서는 그 시대의 성리학자와 달리 실천유학을 중시했던 道學者요 理氣를 포괄한 大心の 철학자다. 배타보다는 포용, 분석보다는 회통을 중시하며 모든 것을 생명 차원에서 교감한 하서는 단순한 성리학자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성리학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연한 최영성(국립전통문화학교) 교수는 '전북 유학 소사'라는 발표를 통해 전북의 유학사와 전통을 정리했다. 최근까지 호남 유학사는 김인후, 이항, 기대승, 기정진, 전우 같은 학자를 빼고는 의미 있게 논의되지 못했으나 여암 신경준, 이재 황윤석, 목산 이기경, 간재 전우, 반계 유형원, 석정 이정직 등 한국유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大儒賢들이 많다고 말하고, 이분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鍾달 회장 산양회 임원 격려 회식

박종달 회장은 지난 7일 미가에서 산양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회식을 가졌다.

지난 6월21일 산양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렸던 하기 학술강연회가 전주 지역 회원들의 열성어린 지원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큰 행사를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았던 임원들을 격려하였다.

600여명의 전북 유림들이 金忠烈 학술원 회원과 崔英成 교수의 강연을 경청한 것을 자축하였다. 그리고 강연 요지를 200부 더 인쇄하여 배부하기로 했다.

이날 회식에는 오인균 부회장, 신두천 부회장(전남), 장원석 부회장, 김용숙 상임부회장과 김재수, 박래호, 양희택, 이충원, 김택수 도유사가 참석하였다.

▶ 산양회보 편집회의

지난 11월 13일 10시30분 화랑궁 식당에서 <산양회보> 10집 편집안과 2007년 정기총회에 대해 논의했다. 2007년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예정을 12월 21일(금) 광주향교 유림회관으로 확정했다. 초청연사로는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유교의 예'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는 박종달 회장, 김용숙 상근부회장, 박래호 총무, 김재수 편집장, 김장수 편집위원이 참석했다.

▶ 산양회 임원회의 열려

지난 9월 14일 화랑궁 식당에서 김용숙 상임부회장 초청으로 본회 임원회의가 열렸다. 박종

달 회장, 오인균, 신두천, 장원석 부회장, 박래호, 김재수, 양희택, 이충원 씨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07년 12월 정기총회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일을 12월 10일경으로 잡고, 강사 초청은 김재수 편집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 본회 고문 최상욱 남화토건 회장 은탑산업 훈장 받음

건설 외길 60년을 걸어온 남화토건 최상욱 회장이 제 60주년 건설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최 회장은 "성실을 토대로 정도 경영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수많은 회사가 단기간에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건설업계에서 분수에 맞는 정도 경영에 주력한 결과 오늘의 남화토건이 있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한국 건설사의 산 증인이다. 지난 60년간 윤리 투명경영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남화토건을 이 지방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회사로 키워냈다.

유교 윤리를 사업 경영에 실천하여 성공한 유림으로 유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 본회 민우식 고문, 한국 시문학 대상 수상

본회 민우식 고문이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문학으로부터 한국 시문학 대상을 수상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 본회 고문인 中軒 金鍾變(전 전북유도회장)

씨가 先祖 金時瑞의 문집인 有然堂 遺稿를 번역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 전북 순창 지역의 河西先生 유적을 발굴 보존하는데 노력을 쏟아왔다.

▶ **본회 장원석 부회장 광주 동구민상 수상**

광주 동구청이 수여하는 제12회 동구민상을 본회 장원석 부회장이 받았다. 사회봉사부분상을 수상한 장원석 부회장은 해마다 ‘주민화합민속 한마당 잔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왔었다.

본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장 부회장은 유림들의 사회봉사에 모범이 되었다.

▶ **박래호 총무 대학 강단에 서다**

평생 한학 외길을 걸어온 노강 박래호(본회 총무)가 전주대학교 사범대 한문 교육과 객원교수로 임용돼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강의한다. 30여 년 동안 필암서원에서 대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젊은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 **총무간사 이충원씨가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였다.**

▶ **河西 김인후 선생 기리는 추향제 열려**

‘하서의 강학 활동과 문인 양성’ 주제 강연도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추향제가 지난 9월 30일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향제는 봉진례, 전폐례, 초헌례 순서로 전통의례에 따라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초헌관에는 김환국(金煥國) 정읍향교 전교, 아헌관에는 안명수(安明洙) 영남 유림 대표, 종헌관에는 이정희(李正熙)광주 유림이 맡아 헌작(獻爵)하였다.

제를 마친 뒤 안동교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의 강학 활동과 문인 양성’이라는 주제의 강론을 통해 “하서 선생은 영남의 퇴계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호남의 큰선비로, 전북 순창에서 훈몽재라는 서당을 세워 본격적으로 강학을 전개한 이후 타계하기까지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고 말했다.

“선생은 조광조의 학풍을 이어받아 도학정신을 특히 강조했고, 제자들은 이를 실천하여 호남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앞으로 하서 선생의 문인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추향제에는 유한상 성균관 고문, 박종달 산양회장, 김달수 대종회장, 안명수 영남 유림대표, 정운영 전북 유림 대표, 김환국 정읍향교 전교, 배병현 성균관 청년 유도회 중앙회장, 유두석 장성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선생 특별전 개최**

-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국립광주박물관이 9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

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김인후의 가계와 출사 △인종과의 만남 △조선 성리학과 하서 △선비 정신과 시 세계 △하서와 필암서원 △하서의 문묘 배향 등 6부로 나뉘어 모두 100여점의 유물이 2개월에 걸쳐 전시되었다.

특히 당대 성리학의 최대 화두였던 이와 기를 그림으로 해설한 하서의 천명도가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9월 11일 개막식에는 김택수 문정공 도유사, 김달수 대총회장, 박종달 산양회장, 조현종 박물관장 등 많은 사람들과 서울에서 내려온 종친들이 함께 참석했다.

▶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특별전시 기념 강연

하서의 삶과 학문, 필암서원의 의의를 주제로

지난 10월 17일 14시부터 17시 50분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하서 특별전시 기념강연이 있었다. '하서의 삶과 그 학문'이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오종일 교수가 2시간에 걸쳐 열강을 하여 청중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하서의 도학과 성리학', '호남 유학과 김인후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총집약한 발표여서 관심을 끌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특별전을 기념해서 '필암서원의 기능과 의의'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윤희면 교수가 강연하였다. 필암서원의 설립과 사액, 신미존치의 역사적 과정과 의의를 논하고 필암서원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강진향교 유림 550명 필암서원 우동사 알모

유일하게 유림의 날 제정한 강진 유림들 참석

전남 강진향교(康津鄉校)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유림(儒林)의 날'을 제정하고 해마다 뜻 깊은 행사를 가져왔다.

지난 9월 21일 김광진(金廣鎭) 전교와 박종일(朴鍾一) 유도회장은 550여 명의 유림을 인솔하여 필암서원을 방문하고 우동사를 알묘(謁廟)하였다. 신두천(申斗千) 전남 부회장과 김택수(金宅洙) 문정공 도유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서 본회 박래호 총무가 특강을 하였다.

▶ 김해향교(金海鄉校) 우동사(祐東祠) 알모

조경용 전교, 조기환 회장 인솔

지난 10월 29일 김해향교 유림 130명이 조경용 전교, 조기환 회장의 주선으로 본원 우동사를 알묘하고 청절당(淸節堂)에서 본회 박래호 총무의 특강을 들었다.

광주향교 박태근(朴泰根) 회장이 특별히 환영사를 했으며 장성군청 공병주(孔炳柱) 문화관광과장이 안내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入會를 환영합니다

〈姓名, 本貫, 雅號〉

광주	북구	梁海弼	장성군	황룡	黃龍植
	광산	崔成休	장성군	황룡	金相沃
전남	보성군	廉喆浩	장성군	황룡	高在根
	보성군	蔡吉三	장성군	황룡	高在鎰
	영암군	愼憲範	장성군	황룡	徐景澤
	곡성군 옥과	鄭得采	장성군	황룡	金炳俊
	담양군	朴光鎬	장성군	황룡	金相述
	나주시	崔基旭			이상 15名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住所	職位	姓名	金額	住所	職位	姓名	金額
光州	會長	朴鍾達	1,000,000	"	회원	金榛洙	50,000
"	副會長	金容淑	200,000	長城	울산김씨	공직자일동	300,000
"	副會長	張源碩	200,000	"	울산김씨 종손	金鳳九	100,000
"	고문	金宅洙	200,000	儒道會	居昌支部	月川支會	100,000
"	편집위원장	金梓洙	700,000	羅州		최기욱	100,000
"	감사	金炳權	200,000	全州	회원	金鍾燮	100,000
長城	총무	朴來鎬	100,000	"	회원	金炳閏	100,000
"	재무	梁熙澤	100,000	"	회원	金彭洙	100,000
光州	향교전교	鄭尙允	200,000	"	회원	申文秀	100,000
"	유도회장	朴泰根	200,000	"	회원	金相錫	100,000
화순		朴奇鎬	100,000	"	회원	金鳳洙	50,000
光州	문정공	친목회일동	300,000	"	회원	金柄權	50,000
"	회원	金寅洙	200,000	"	회원	李世煥	130,000
"	회원	金官中	100,000		合計	27名	5,180,000

알 림

1. 본회 2007년 정기 총회 및 제 20차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오니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12월 21일(금요일) 10 : 30
- 장 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
- 강 연 :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 고영진 교수(광주 대학교, 학국사)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정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용숙)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9-832-4562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고형곤 씨 등 유림 230명이 모여 '산양계'를 '산양회'로 발족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안팎희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안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총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인종승화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鍾業씨(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 의 주제 아래 尹縉享 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장간호) 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俊圭 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대회시 안팎희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특강.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2호) 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특강.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회.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안팎희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維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의 강회
- 2004. 3. 9일 추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사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회.
- 2004. 12. 10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 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를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 山仰會報 4호 1500부 발행.
- 2005. 3. 28일 추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박사의 강회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준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
- 2006. 3. 20일 추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했다.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회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인이 우러러 보는 河西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하였다.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회찬」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의 강회
- 2007. 4. 3 추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성균관 유도회 회장이 강연.
- 2007. 6. 21 전주 덕진구청 대강당에서 하계 학술강연.
"河西선생의 도학과 전북 유학"이란 주제로 열린 김충열, 최영성 박사 강연에 600여명 유림 참석. 대성황
- 2007. 9. 30 추향제 봉행. '하서 선생의 강학 활동과 문인 양성'이란 논제로 안동교(전남대)교수 강연
- 2007. 12. 21.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2007년 정기 총회 및 학술강연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논제로 고영진(광주대)교수 강연.
- 2007. 12. 21 '산양회보' 제 10호 발간 배포